

2019년 11월 14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파월 발언 이후 장중 상승 전환 성공 파월 “일부 자산군 상승 했지만, 정상 범위에 있다”

미 증시 변화 요인: 파월 연준의장 발언, 무역협상 불확실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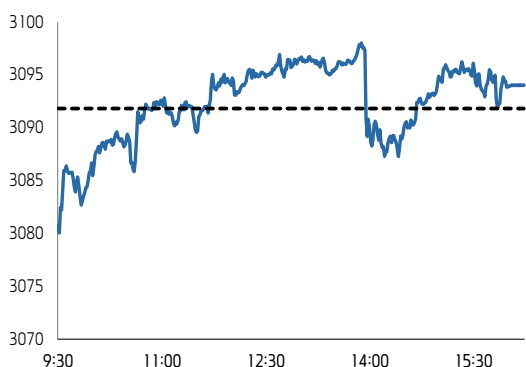
미 증시는 홍콩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확대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하락. 다만, 파월 연준의장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고 디즈니(+7.35%)가 호재성 재료로 급등하자 상승 전환 성공. 그러나 상승을 견인할 모멘텀이 부족해 전반적으로 보합권 등락에 그침. 이런 와중에 미-중 무역협상을 둘러싼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자 나스닥이 재차 하락 전환하기도 하는 등 변화를 보임(다우 +0.33%, 나스닥 -0.05%, S&P500 +0.07%, 러셀 2000 -0.37%)

파월 연준의장이 미 의회 합동경제위원회에 출석해 ‘경제전망과 통화정책’에 대해 증언. 이날 파월의장은 경제에 대해서 “현재의 확장은 11년째이며 기본 전망은 여전히 우호적이다” 라고 언급하며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 다만, “해외성장 부진과 무역분쟁은 지속적인 위험 요인이다” 라고 주장.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미 경제는 연준의 전망과 대체로 부합하는 한 통화정책의 변화는 제한” 된다고 금리 동결 의지를 표명. 그러면서도 “통화정책은 사전에 정해진 경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며 향후 경기의 흐름에 따라 유연해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 그러나 “현재 저금리 환경은 통화정책이 경제를 지원하는 능력을 제한 할 수 있다” 라며 정부 재정정책 확대를 요구

결국 파월 의장은 ①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 ②금리 동결을 언급 했으나 유연한 통화정책을 시사 ③기업 부채는 역사적으로 높지만 가계 대출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낮으며 소비 여력이 높음을 시사 ④“전반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며 일부 자산이 상승 했지만, 정상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며 일부에서 제기된 증시의 버블논란을 완화 시킨 점이 특징. 파월 발언 이후 미 증시는 상승 전환에 성공

이런 와중 장 마감을 앞두고 미 언론이 “미국과 중국은 무역협상에서 미국 농산물 수입 규모를 둘러싸고 마찰이 생겼다” 라고 보도. 이는 홍콩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가 나오지 않고 있는 정상회담 등 무역협상 서명 관련 불확실성을 재차 부각되자 나스닥이 하락. 다만, 관련 보도는 어느 정도 예견된 내용이라는 점, 트럼프가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 낙폭이 축소되거나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임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122.45	-0.86	홍콩항셱	26,571.46	-1.82
KOSDAQ	661.85	-0.49	영국	7,351.21	-0.19
DOW	27,783.59	+0.33	독일	13,230.07	-0.40
NASDAQ	8,482.10	-0.05	프랑스	5,907.09	-0.21
S&P 500	3,094.04	+0.07	스페인	9,194.50	-1.21
상하이종합	2,905.24	-0.33	그리스	870.93	+0.51
일본	23,319.87	-0.85	이탈리아	23,578.43	-0.8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시스코시스템즈 시간 외 4% 내외 하락 중

디즈니(+7.35%)는 장 중 디즈니+ 가입자가 하루만에 1천만명을 돌파 했다고 발표하자 급등 했다. 반명 경쟁사인 넷플릭스(-3.05%)는 하락 했다. 데이터 통합 플랫폼 회사인 데이터독(+16.83%)은 크게 개선된 실적을 발표하고 다음분기 가이드스 또한 예상을 크게 상회한 결과를 내놓자 급등 했다. 아웃도어 의류회사인 캐나다 구스(-10.83%)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 상승 출발 했으나, 실적이 선적시기 변화 등이 주도했다는 점이 부각되자 매물이 출회되며 급락 했다.

JP모건(-0.53%), BOA(-0.91%), 씨티그룹(-1.55%)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하락과 무역분쟁 우려가 부각되자 부진했다. 애플 부품주인 스카이웍(-0.44%)은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무역분쟁 여파로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하락 했다. 애플(+0.96%)은 팍스콘의 견고한 실적 발표로 상승 했다. 장 마감 후 시스코시스템즈(+0.19%)는 실적 발표 후 매물이 출회되며 시간 외로 4% 내외 하락 중이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57%	대형 가치주 ETF(IVE)	+0.01%
에너지섹터 ETF(OIH)	-2.61%	중형 가치주 ETF(IWS)	-0.01%
소매업체 ETF(XRT)	-0.52%	소형 가치주 ETF(IWN)	-0.63%
금융섹터 ETF(XLF)	-0.64%	대형 성장주 ETF(VUG)	+0.25%
기술섹터 ETF(XLK)	+0.22%	중형 성장주 ETF(IWP)	+0.27%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57%	소형 성장주 ETF(IWO)	-0.21%
인터넷업체 ETF(FDN)	-0.35%	배당주 ETF(DVY)	-0.14%
리츠업체 ETF(XLRE)	+1.01%	신흥국 고배당 ETF(DEM)	-0.41%
주택건설업체 ETF(XHB)	+0.09%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63%
바이오섹터 ETF(IBB)	+0.18%	미국 국채 ETF(IEF)	+0.27%
헬스케어 ETF(XLV)	+0.12%	하이일드 ETF(JNK)	-0.11%
곡물 ETF(DBA)	-0.37%	물가연동채 ETF(TIP)	+0.09%
반도체 ETF(SMH)	+0.17%	Long/short ETF(BTAL)	+1.0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38.79	-0.51%	-0.90%	+3.78%
소재	376.75	-0.48%	+0.86%	+4.57%
산업재	685.95	-0.40%	+0.03%	+5.36%
경기소비재	947.05	-0.38%	-1.27%	-1.23%
필수소비재	629.53	+0.86%	+0.52%	+1.56%
헬스케어	1,103.19	+0.11%	+1.22%	+4.35%
금융	490.55	-0.57%	-0.12%	+5.53%
IT	1,518.68	+0.25%	+1.87%	+5.74%
커뮤니케이션	175.85	+0.42%	+1.37%	+2.90%
유틸리티	316.28	+1.47%	-0.71%	-1.79%
부동산	234.76	+1.07%	-0.82%	-3.3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외국인 수급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0.91% MSCI 신흥 지수 ETF 는 0.77%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 244 계약 순매도 했으나 0.10pt 상승한 281.9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71.7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가운데 파월 연준의장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고 일부 자산군의 상승이 적절한 수준에 있다고 주장하자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이는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홍콩이슈가 지속된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장 후반 재부각된 점은 부담이다. 물론 장 마감 후 트럼프가 “중국과 빠르게 협상을 진행중이다” 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은 일정 부분 완화 가능성이 높다.

물론 오늘은 옵션만기일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 증시에서 반도체 등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 부진한 종목군이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심리 위축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NDF 달러/원 환율의 상승과 MSCI 지수 편입을 둘러싼 외국인의 매물 출회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연말 쇼핑시즌에 대한 기대가 높아 매출세 또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더불어 전일 애플 주요 공급업체인 대만의 팹스콘이 견고한 실적을 발표하고, 연말 쇼핑시즌에 대한 애플의 긍정적인 매출 전망이 이어지고 있어 관련 기업들의 반등이 예상된다. 한편, 미 국방 장관이 북한과 대화를 위해 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해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기대된다는 점 또한 우호적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외국인의 수급과 홍콩 항생지수, 중국 증시의 변화에 주목하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 상회

10 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 했다. 이는 전월(mom +0.0%)이나 예상(mom +0.3%)를 상회한 결과다. 전년 대비로도 1.8% 상승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3% 상승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채금리 하락

국제유가는 OPEC 사무총장이 글로벌 경기 침체 조짐이 없고 2020년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량이 예상보다 훨씬 적게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했다. 더불어 파월 연준의장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다만 장 후반 중국과의 무역분쟁 우려가 높아지자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

달러화는 파월 의장의 발언과 홍콩 문제로 혼조양상을 보였다. 특히 소비자물가지수가 양호하고,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 동결을 시사하자 유로화와 파운드화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엔화에 대해서는 홍콩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장 후반 무역분쟁 우려가 높아지자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홍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하락 출발했다. 그러나 파월 연준의장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고, 경기가 위축되지 않는 한 금리를 동결할 것임을 시사하자 하락폭이 축소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장 마감에 앞두고 농산물 수입 규모 명시화를 두고 무역협상 난관에 부각되자 재차 하락폭을 확대하기도 했다.

금은 무역분쟁 우려가 부각되자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부각되자 하락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74%, 철근은 0.12% 하락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7.12	+0.56	+1.37	Dollar Index	98.356	+0.05	+0.41
브렌트유	62.37	+0.50	+1.02	EUR/USD	1.1003	-0.05	-0.57
금	1,463.30	+0.66	-2.00	USD/JPY	108.84	-0.16	-0.13
은	16.913	+1.32	-3.89	GBP/USD	1.2848	+0.02	-0.05
알루미늄	1,765.00	-0.73	-2.49	USD/CHF	0.9907	-0.24	-0.21
전기동	5,835.00	-0.58	-1.22	AUD/USD	0.6835	-0.09	-0.71
아연	2,422.00	-2.02	-2.14	USD/CAD	1.3252	+0.14	+0.54
옥수수	375.25	-0.66	-0.92	USD/BRL	4.1767	+0.30	+2.51
밀	513.75	-1.53	-1.49	USD/CNH	7.0298	+0.08	+0.24
대두	915.25	-0.19	-1.32	USD/KRW	1167.80	+0.60	+0.94
커피	111.15	+2.07	-0.36	USD/KRW NDF1M	1171.04	+0.43	+0.88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891	-4.35	+6.29	스페인	0.447	+0.70	+15.80
한국	1.785	-5.70	-2.50	포르투갈	0.360	+0.10	+14.40
일본	-0.042	-2.20	+3.70	그리스	1.384	+0.30	+19.50
독일	-0.300	-4.80	+3.30	이탈리아	1.242	+2.70	+24.00